

광주FC, 최종전 '5위 지키기' 사활 건다



광주FC가 오는 11일 오후 2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안산 그리너스와 KEB하나은행 K리그2 2018 36라운드 최종전을 치른다. 최근 안양 그리너스와의 경기에서 광주FC의 펠리페(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득점을 한 후 동료들과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11일 월드컵경기장서 안산 그리너스와 격돌 비겨도 5위 확정...PO 진출 위해 승리 목표

프로축구 광주FC가 2018 홈 폐막전을 승리로 장식하기 위해 축구와 끈을 동여 맨다. 광주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안산 그리너스와 KEB하나은행 K리그2 2018 36라운드 최종전을 치른다. 시즌 최소 목표였던 플레이오프 진출(4위)은 이루지 못했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 있다. 안산 무공화외의 선수수급 문제로 인해 플레이오프 자격이 5위까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는 현재 승점 45점(팀 득점 47)으로 6위 FC안양(승점 43점, 팀 득점 42)과 격차를 두고 있다. 사실상 무승부만 거둬도 5위가 확정되는 상황. 하지만 광주는 최종전 승리로 5위를 지킨 뒤 추이를 지켜 볼 생각이다. 광주가 이뤄야 할 목표는 하나 더 있다. 바로 전 구단 상대 승리다. 광주는 올 시즌 유일하게 안산을 이기지 못했다. 이번 경기에서 전 구단 상대 승리와 함께 올 시즌 내내 성원을 보낸 홈 팬들에게 승리를 선

물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경기는 기쁨을 함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나상호는 현재 리그 15골로 프로 데뷔 2년 만에 생애 첫 득점왕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 A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개인은 물론 팀 전체에 큰 경사를 안겼다. 또 측면 수비수 박요한이 안산전에 출전할 경우 통산 100경기 출전을 달성한다. 최근 광주의 분위기는 좋다. 지난 부산전에서 터진 버저비터 골이 활력소가 됐고, 안산전을 앞두고 경교 누적으로 결장했던 펠리페와 여봉훈이 돌아오면서 전력도 상승했다. 안산은 승점 39점으로 9위에 있다. 하지만 최근 3경기 연속 무패에 단 1실점밖

에 내주지 않을 정도로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 올 시즌 안산을 상대로 고전했기에 장점을 살리고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광주는 홈 폐막전을 앞두고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킥오프 전 남문 매표소에서는 카리요술공연, 미니축구 게임 등 장외행사가 열리고, 핫팩과 빼빼로(빼빼로데이)를 선착순(1천명)으로 나눠준다. MD상품 구매 관중에게는 사인볼을 추가로 증정하고, 증정상품도 준비했다. 광주가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로 홈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를 주무는다. /조상기 기자 gie9928@

이동국, 내년에도 전북 유니폼 입는다 전북 단장 "이동국과 재계약 할 것...시즌 중 마무리"

한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베테랑 공격수 이동국(39·전북·사진)이 내년 시즌에도 전북 현대 유니폼을 입고 뛸 것으로 보인다. 백승권 전북 단장은 8일 "이동국과는 재계약하려고 한다"면서 "올해 정규시즌이 끝나기 전에 계약 문제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은 이동국에게 1년 재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약 방침을 정한 만큼 연봉 등 세부 조건만 맞으면 계약서에 사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9년 전북 유니폼을 입은 이동국은 내년 시즌에도 전북에 몸담게 됐다. 특히 전북은 13년간 팀을 이끌었던 최강희 감독이 중국 슈퍼리그 헝진 취안젠 사령탑을 맡게 되면서 새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기존 전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15년 11억1천256만 원을 받아 국내 선수 중 '연봉킹'에 올랐던 이동국은 지난해에는 9억9천56만 원을 받아 전체 선수 중 연봉 순위 4위에 랭크됐다. 이동국은 올 시즌에도 32경기에 출전해 13골(득점 부문 5위)을 터뜨리며 10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다. 특히 이동국은 개인 통산 501경기 출장에 김기동과 필드플레이어 최다 출장 타이 기록을 작성했다. 현재 최다 골 신기록인 통산 215골을 기록 중이며, 도움도

75개 작성했다. 전북은 아울러 지난 1월 중국 슈퍼리그 장쑤 쑤닝에서 1년 임대 신분으로 영입한 수비수 홍정호(29)의 완전 이적도 추진 중이다. 백승권 단장은 "홍정호 선수를 잡고 싶지만 장수와 먼저 풀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완전 이적을 추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보해장학회 체육 장학생 선발 돌입

전남도체육회, 도교육청 및 시·군체육회 협조 요청 21일까지 추천기한...초·중생에 1인 30만원 지급

보해장학회가 기탁한 장학금을 수여할 30명이 조만간 확정된다. 8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2018년도(제)보해장학회 장학금 운영 계획(안)을 확정짓고, 시·군체육회 및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기로 했다. 전남도체육회가 확정된 운영 계획(안)에 의하면, (제)보해장학회의 900만원 기탁금에 대해 1인 3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대상자는 초·중등학생으로 한정했다. 이는 지역 체육영재를 발굴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시키는 방안을 지양한 것이다. 대상자 30명은 도내 22개 시·군 중 여수·순천 등 5개 시에는 2명씩을, 담양·곡성 등 17개 군(郡)에는 1명씩을 각각 배정하기로 했다. 여타 잔여 인원 3명은 전남도교육청에 1명, 전남도체육회가 2명을 추천한다는 원칙 아래, 시·군체육회의 추천 대상자를 근거로 해 종목 중복 등 여

러 정황을 감안해 전남도체육회가 최종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남도체육회는 전국소년·동계체육대회, 국제대회, 전국규모대회, 도내대회 성적 거양 순(順)으로 장학생을 추천해줄 것을 권장했으며, 반드시 전남도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로 못박았다. 추천 기한은 21일까지다. 장학금 전달은 매년 12월 개최 예정인 전남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도체육회 박철수 상임부회장은 "(제)보해장학회의 장학금은 전남체육을 이끌어갈 체육 영재 발굴 등 장밋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적잖은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군체육회 및 전남도교육청에서 재능있는 우수선수를 대거 추천해줬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제)보해장학회는 향후에도 매년 9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기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상기 기자 gie9928@

한국시리즈 8번째 우천순연...구단 승패 좌우하나

손혁 SK 코치 "선발 등 투수진 하루 쉬어 괜찮아"

8일 오후 6시 30분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예정이던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한국시리즈 4차전이 비로 취소됐다. 역대 포스트시즌을 통틀어 18번째 우천순연 경기다. 이 중 8번이 한국시리즈에서 나왔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구장에서 투수들의 캐치볼 훈련을 지켜본 손혁 SK 투수코치는 "4차전 선발 김광현이 비로 하루 쉬어도 경기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볼펜 투수들도 쉬게 돼 괜찮다"고 비를 반겼다.

트레이 힐만 SK 감독도 "우천 취소가 나쁘지 않다"고 했다. 한국시리즈에서 내린 비는 전체 시리즈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큰 변수가 안되기도 했다. 1984년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시리즈 7차전, 2001년 두산과 삼성의 한국시리즈 2차전은 비가 시리즈 결과를 뒤집은 대표 사례로 꼽힌다. '무쇠팔' 고(故) 최동원의 홈런 4승으로 유명한 1984년 한국시리즈에서 롯데는 비 덕분에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동원은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완봉승, 3차전에서 완투승, 5차전에서 완투패

를 하고 6차전에서 5회부터 또 구원 등판해 승리를 쟁겼다. 2001년 한국시리즈에서 비는 두산 편이었다. 정규리그 3위로 준PO, 플레이오프(PO)를 거쳐 한국시리즈에 오른 두산은 정규리그 1위 삼성과 힘겨운 한국시리즈를 펼칠 것으로 보였다. 예상대로 1차전을 잡은 삼성은 여세를 몰아 2차전 승리를 노렸지만, 알맞은 비에 꿈을 접었다. 준PO 2경기과 PO 4경기, 한국시리즈 1경기 등 7경기를 연속으로 치른 두산은 적시에 내린 비 덕분에 체력을 비축했고, 하루 후 재개된 한국시리즈에서 2~4차전 세 경기를 내리 이겨 우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두산은 4승 2패로 촉매를 들었다.

삼성엔 한국시리즈에서 비 때문에 두 번이나 울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삼성은 SK와 격돌한 2012년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도 비로 취소된 바람에 2연승의 기세를 살리지 못하고 3·4차전을 내리 패배 위기에 몰렸지만, 5·6차전을 닦아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우승 삼패인을 터뜨렸다. SK는 가을 잔치에서 비로 재미를 본 구단이다. 2009년 두산과의 PO에서 2패 후 2연승을 거둔 SK는 5차전에서 경기 초반 2회에 내린 폭우로 노계임이 되는 행운을 누렸다. 하루 쉬고 격돌한 SK는 초반에만 7점을 뽑아내는 무서운 공격력을 뽐내며 한국시리즈 진출 티켓을 잡았다. /연합뉴스

여자컬링, 한일전서 준결승 진출

후지사와팀에 패해 3위

여자컬링 대표팀(춘천시청)이 2018 아시아 태평양 컬링선수권대회(PACC) 예선에서 열린 한일전에서 일본 '팀 후지사와'에 패했다. 김민지 스킵이 이끄는 여자컬링 대표팀은 8일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 아시아 태평양컬링선수권대회 예선 6차전에서 일본(스킵 후지사와 사쓰키)에 4-7로 패했다. 일본의 팀 후지사와는 2018 평창동계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강팀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준결승에서 '팀 킵'(경북체육회)과 명승부를 벌여 한국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한국은 4엔드와 8엔드 1점씩 '스틸'(선공 팀이 득점)하는 등 선전했지만, 2엔드와 5엔드에 3점씩 잃은 타격으로 경기를 내졌다. 한국은 마지막 10엔드에서 역전 가능성이 사라지자 남은 스톤을 마저 던지지 않고 일본 선수들에게 약수를 청하며 패배를 인정했다.



8일 오전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 강릉 아시아 태평양 컬링선수권대회 여자 컬링 예선 7차전 한국과 일본 경기에서 한국팀의 스킵 김민지가 스톤을 투구하고 있다. 한국은 예선 4승 2패를 기록, 3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일본은 6전 전승을 거두며 예선 1위에 올랐고, 중국이 5승 1패로 2위를 차지했다. 2승 4패를 기록한 홍콩이 4위로 준결승에 합류했다. 한국의 준결승 상대는 중국이다. 한국은 예선에서는 중국에 5-6로 석패했다. 준결승에서 중국에 설욕한다면 결승 진출과 함께 내년 세계선수권 출전권도 확보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선수권남녀 1·2위에 오르는 팀은 내년 초 열리는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획득한다. 3위 팀은 세계선수권 예선 진출 기회를 얻는다. /연합뉴스

'호주 원정 평가전' 벤투호 21명 12일 출국

이청용 등 5명은 호주서 합류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호주 원정 평가전을 위해 12일 출국한다. 11월 A매치에 나서는 '벤투호 3기' 대표팀은 12일 오후 7시 45분 인천공항을 통해 호주로 떠난다. 소집대상 선수 26명 가운데 당일 출국하는 선수는 K리그 중심으로 21명이다. 반면 해외 무대에서 뛰는 이청용(보훝)과 구자철(아우크스부르), 황희찬(함부르크), 김진민(FC리퍼링), 정승현(가시마) 등은 소속팀 일정 때문에 호주 현지에서 합류한다. 특히 유럽에서 호주까지는 비행기로 24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독일 무대에

서 뛰는 이청용, 구자철, 황희찬과 오스트리아 리그의 김진민은 쉽지 않은 여정이 될 전망이다. 이청용은 벤투 감독이 지난 8월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후 처음 대표팀에 발탁됐다. 구자철은 10월 A매치를 앞두고 '벤투호 2기' 소집명단에 들었다가 급성신우염으로 김승태(포항)로 교체됐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첫 승선이다. 한편 벤투호 태극전사들은 17일 호주 브리즈번의 선코프 스타디움에서 호주와 맞붙고, 20일에는 우즈베키스탄과 대결한다. /연합뉴스